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야 구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마귀는 저절로 죽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으로 변한다

이 길은 마음먹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될까요? 마음을 한 번 먹었으면 꾸준히 변치 않고 그 마음을 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없으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뱀뱀이 소갈머리 마냥 만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되고 결국은 실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뜻을 품으면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있어야 영생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가져야 기어이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 없이 변덕을 부리면 매일 영적으로 떨어져서 다시 출발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만 하다가 볼 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결과를 이루고야 마는 것이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없으면 이 세상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수록 죽지 않는 영생의 일은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되어 질 수가 없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 피가 썩게 되고, 그 썩은 피가 매일 축적 되는 고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의 마

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사람은 결국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고 시간 시간이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다져져야 그 피가 영생의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관에서는 피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영모님이 옛날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야 구원이지만, 사람의 피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시간 시간이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귀중하게 여기는 고로 율화통이 터져서 화가 나도 영생을 빼앗길까봐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게 되어 있는 고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도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건 귀한 것을 말하는 건 고로 생명의 귀한 은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던져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슬성신을 부여할 때에 그냥 아무에게나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슬성신을 받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은 그 마음을 보고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쥐 봐야 금세 죄 짓고, 금세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화내고 미워해서 그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고로 안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은 깽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깽쟁이나 하면 정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깽쟁이라는 말이 나쁘게 인식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로 여기는데, 깽쟁이라는 건 정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쥐가지고 간직할 수 있는지, 간직할 수 없는지를 알고 은혜를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라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지만, 영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상

당히 어수룩하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 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고로 전략상 그 본심을 케 내기 위해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 같은 고로 알보고 있는 말 없는 말 내 던지다가 본성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놈이로구나! 하

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의 실체

이 사람이 지구 땅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흠속에 묻혀 있는데 이 불덩어리가 왜 식지 않고 있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변하지 않는 신입니다. 일본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불덩어리가 지반이 약한 곳으로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고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속에서 불덩어리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불이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불덩어리가 앞으로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불덩어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안 켜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고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저절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제단 나와서 은혜를 입고 이긴자 하나님이 되면 왕의 반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원무궁토록 얼굴에서 빛이 나가고 날아다니면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고로 하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어도 영광인데 왕 노릇하면서 영생한다면 이젠 보통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긴자가 되려면 이긴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번 뜻을 품으면 굽히는 일이 없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 우주를 주관하는 왕중왕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왕 영생 얻을 바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긴자가 되어서 왕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왕중왕인 고로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승리제단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의 반열에 세워져야 그 래야 여러분들이 그날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쾌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하게 달음박질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도 희망도 없으면 전도를 해도 맥이 없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눈에서 불이 나므로 전도 받는 사람이 눈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형욱 기자

《지구 땅속의 불덩어리의 실체와 지진 그리고 화산에 대한 주님의 말씀》

지구 땅속에 중성자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불덩어리가 지구 땅속에 있는데, 왜 바닷물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그것은 지구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빛인 까닭에,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지 태우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를 수도 없고 또 땅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과학자들은 이 지구 땅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다만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터진다고 하면, 이 지구 땅속에 불덩어리가 솟구쳐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 밖으로 나온 불은 흠도 태우고 산에 있는 나무를 태워 산불을 일

으킵니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 고로 땅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마귀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마귀의 불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로 변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진이 나서 이제 그대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나라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예덴동산이 건설될 땅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이제 땅을 뚫고 솟구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_ 2001년 11월 15일 말씀

여러분들, 구세주가 혼자 잘났다고 잘난 척하느라고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학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의 실체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구 땅 가운데에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지구 땅 가운데 있는 불덩어리가 지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화산이 폭발되어 나오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가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다 가운데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가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어떻게 하면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이 세상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근본학설을 모르고 있는 고로 그런 고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_ 2003년 2월 12일 말씀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1)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아니하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내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출33:3).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약속의 땅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육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복지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건설된 천국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는 가나안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만민들의 마음속에 가나안복지(천국)를 건설하는 의인이 땅 끝 땅 모퉁이의 나라, 한반도에서 나올 것이다'고 예언하셨습니다.¹

¹ 시내광야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변함없이 그와 같은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축복받을 만한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야모

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33:3)."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만 빼어내어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로 인도하시고 숨겨서 구세주를 배출하려 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역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1)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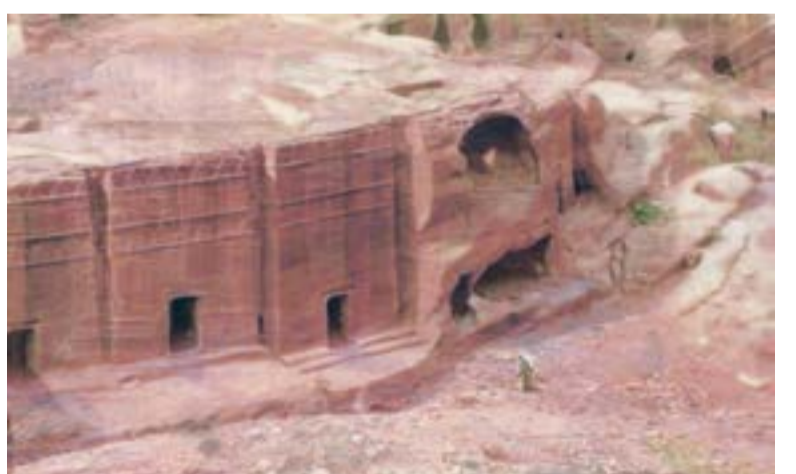
출애굽 2년 5월(암월) 초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신(Sin)광야의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에 진을 치고 38년간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40년 1월(니산월) 14일 율월절을 지내고 이어서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40년간 담당하겠다는 기한이 다 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교절을 지낸 그 다음달 2월(이아르월)에 에돔왕에게 사신(使臣)을 보냈습니다.²

² 출애굽 2년 4월(담무스월) 하순에 이스라엘의 6만 군사들은 네겝 광야의 하스모나(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Hashmonah)를 떠나 옷바다를 경유하여 아브나(Abinadah) 부근의 예시온게벨(아카바)에 이르렀습니다. 예시온게벨을 떠나 홍해(아카바만)의 동해안을 따라 하골(Hag)에 이르고, 하

시내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신(Sin)광야의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에서 모세의 명을 받은 사신은 가나안의 사해 남쪽에 있는 아라바 산악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바의 동쪽 산악지대가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에돔'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돔'이라는 말은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별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온 몸에는 붉은 빛깔의 털이 나 있었기에, 그의 이름은 털이 많은 '에서(털보)'와 붉다는 '에돔'으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성읍에 도착한 모세의 사신은 에돔왕을 만나 길에서 동남쪽으로 행진하여 시내산(라오즈산)의 신(Sin)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2년 5월(암월) 초순에 그들은 신(Sin)광야의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친 그곳은 시내산의 동남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에돔 성읍

간청하였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오래 살면서 애굽인들에게 몹시 학대를 받았습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큰길(King's High Way)'만 지나가고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사신들에게 "너희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에돔이 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전하라."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신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재삼 부탁하였습니다. 에돔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안엘라